



대림 제4주일(12월 18일)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마태 1,18-24)



요셉의 꿈 (가에타노 간돌피, 1790년 경, 유채, 개인소장)

요셉은 구세주 탄생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마태 1,24 참조), 구세주 탄생의 증인이 되었으며, 위기에 처한 성모자를 정성껏 돌보고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강생과 하느님의 인간구원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굳은 믿음으로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셉과 같은 굳은 신앙과 부성애로 무장한 아버지들이 온갖 위기에 처한 가정과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2. 22.)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이하였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읍시다.

✝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태 1,20)

어떤 두려움 때문에 천주교 신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거나 숨기고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을 못 한 적은 없습니까?

✝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마태 1,24)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거나 상황이지만 신앙인이기에 기꺼이 받아들였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요셉도, 성모님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명령에 대한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씨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받아들였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수월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험하고 고독한 광야의 삶을 선택하였고, 예수님도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어 순명하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김치 한 포기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옳은 김치를 담글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김치에 담긴 하느님의 뜻은 알고 있기에 김치에 있어서는 수월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갈라놓습니다. 많은 인생사 일들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또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용기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